

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		보도자료			
http://www.kihf.or.kr					
보도일시	2026. 10. 27.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온라인: 2026. 10. 26. (월) 12:00 이후			총 2쪽	
배포일자	2026. 10. 26. (월)	담당부서	직장문화개선부		
담당부서장	장은애 부장(02-3479-7670)	담당자	박성연 주임(02-3479-7674)		

저출생 대응 핵심은 ‘안심돌봄’ 과 ‘눈치 안 보는 일터 문화’

-한국건강가정진흥원, 10월 30일 육아방송 ‘육아이슈 현장 속으로’ 출연해
 아이돌봄가족친화 정책 방향 소개
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사장 박구연)은 10월 30일(금) 육아방송 「육아이슈 현장 속으로」에 박구연 이사장이 출연해, 아이돌봄서비스 강화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방향을 소개한다고 밝혔다.
- 해당 방송은 10월 30일(금) 오후 2시 30분과 저녁 8시에 방송되며, 10월 31일(토)부터 11월 1일(일)까지 재방송된다.
- 이번 방송에서 박구연 이사장은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.
- (국가자격제) 진흥원은 올해 4월 시행된 ‘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’의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, 기존 활동 인력의 자격 전환을 포함해 약 4만 4천 명에게 국가자격을 발급했다(‘26. 9. 30. 기준).
- (민간등록제) ‘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’ 운영을 지원해, 일정한 인력·시설 기준과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도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□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야
한다며,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일터 문화를 강조한다.

- (가족친화인증*) 약 7천 개 기업·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,
그중 70% 이상이 중소기업이다(25. 12. 31. 기준).

* 가족친화인증: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성평등가족부가 부여하는 국가 인증

- (맞춤형 지원) 진흥원은 가족친화지원센터로서 인력과 비용이 부
족한 중소기업에 인증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무료 컨설팅과 직장
교육을 지원하고 있다.

□ 이와 함께 전국 245개 가족센터(26. 9. 30. 기준)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,
지역 특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세심한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.

- (지역 맞춤)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동 거리가 먼 인구감소지역에는
찾아가는 서비스,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언어 교육과
정착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지원하고 있다.
- (다양한 가족) 청소년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와 학업·자립 지원을
연계하고, 1인 가구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
정책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있다.

□ 박구연 이사장은 “결국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제도의 유무보다
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”이라며 “관리자와 동료의 먼저
권하는 문화, 연차와 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일터를 만드는
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“아이를 키우는 과
정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모님들의
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